

돈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려워

돈이 튀길래, 돈을 벌어서 뭐할려고, 돈많은 부자에게 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일까?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흔히 돈 벌기보다는 쓰기가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 부자들중 일부가 번 돈을 알맞게, 멋지게 쓰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경우를 흔히 본다.

東西의 富者像

돈을 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저축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고 더 나아가 돈을 아껴쓸 때와 푸짐하게 쓸 때를 가려낸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일을 값있고 보람되게 처리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본받을만한 부자인 것이다.

축재하는 과정이 부정하고 도덕적이지 못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축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덜 먹고 덜 자고 덜 쓰고 그러면서 미친듯이 일했더니 결국 부자가 되었다. 기업을 경영하고 사업을 확장해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을때 그 돈은 이미 자기 돈이 아니더라고...

고용창출, 수출증대, 외화획득, 국민경제 발전기여 등으로 표현되는 중소기업인, 재벌회사 경영주들의 노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부자에도 진짜 부자와 어설픈 부자, 그리고 졸부가 있게 마련이다. 필자가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한가지 장면이 있다. 대궐같은 기와집의 큰 대문이 비스듬히 열려 있고 젊은 머슴 두 사람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서 새끼를 꼬고 있다. 그 옆에 주인인듯한 영감님이 긴 담뱃대를 손에 든 채 불호령을 내리

는 장면, 그리고 대문 밖에서는 두 젊은이가 쌀자루와 망태기를 어깨에 걸치고 안마당을 엿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대문 밖의 두 젊은이가 마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는 서로 눈짓하면서 이 집에서는 포기하자고 하는 것이었다. “벗집 한오라기라도 아껴가지 그렇게 버리면 되나, 그렇게 낭비하면 안돼” 손으로 새끼를 꼬던 머슴이 벗짚 몇오라기를 버렸다고 주인 영감이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이 때 바깥에서의 인기척을 안 영감님이 대문 밖으로 나왔다. “웬일로 왔소” 통명스럽게 묻는데 젊은이가 머뭇거리자 “싱거운 사람도 다 있네, 왜 왔는지 묻지않소” 자기 집에 온 이유를 말하라고 재촉하는 것이다.

“할아버지, 삼남지방의 대홍수로 인 근마음이 큰 피해를 입어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청할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구두쇠 영감의 참모습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영감님이 머슴을 큰 소리로 부르더니 이 젊은이들이 짊어지고 갈 만큼의 쌀을 담아주라는 것이었다. 벗짚 한오라기에도 별별 떠는 구두쇠 영감 마음 어느 구석에 가난한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이 저토록 넘치고 있을까. 애써 모든 재산을 근검 절약해서 사용하며 나이가 좋은 일에 서슴없이 사용하는 그런 부자상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가 뇌리에 가득차 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더욱이 저축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돈을 아껴쓸 때와 푸짐하게 쓸 때를 가



朴 澤 奎

(건국대 화학과 교수)

려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일을 값있고 보람되게 처리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본받을만한 부자인 것이다. 이것이 한국적인 옛 부자상(富者像)이라 한다면 서구적인 부자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존경받는 서양의 富者像

80년대 초 필라델피아에 1년동안 머물면서 가보고 싶었던 곳이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공연장이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음악 아카데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매표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입장권중 가장 값싼 것이 2불짜리이며 이 입장권으로는 4층 딱딱한 나무좌석을 차지하게 된다. 이 공연장에서는 부자와 그렇지 못한 보통사람들이 지불한 돈의 액수에 따라 확연히 구분된 좌석에서 음악을 감상하게 되어 있다.

1, 2층 붉은 융단으로 장식한 화려한 특별석에서는 부자들이 고귀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한편 그 위 3, 4층 딱딱한 나무의자에서는 2불짜리 청중들이 회심의 미소를 띤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똑같이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다.

부자와 보통사람들이 서로의 좌석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분위기를 해치거나 붉은 융단 가죽석에 앉아 있는 귀족풍 부자들을 향해 원망이나 질시의 눈초리를 전혀 보내지 않는 것 같다. 흔히 말하는 위화감이란 전혀 느낄 수 없고 오히려 부자들에 대한 존경의 분위기가 가득차 있는 듯 하였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그 막대한 유지비가 어디서 충당되고 있을까. 시에서 상당액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을 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유지비중에서 상당부분이 회원제로 등록한 시민들의 찬조금이다.

1년에 5백달러, 1천달러, 1만달러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연주 프로그램에 따라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초대권을 받아 기부한 후원회비에 상응하는 좌석에서 가족들과 함께 19세기 왕궁처럼 장식한 로열박스에서 돈의 위력에 만족하면서 오케스트라를 감상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부자들이 후원하는 돈으로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이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지 않고 단돈 1천6백원에 고급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기가 정들어 살고 있는 도시의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는 부자들의 참다운 시민정신이 있기에 가난한 이웃들도 음악을 감상하면서 생의 희열을 맛보고 한편 이웃 부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다지게 되는 것이다.

필라도 81년 말 우리의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은 기억에 새롭다.

100대 재벌에 졸부는 없다

미국 부자들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1989년 아메리칸 이코노믹지에 실린 예일대 사회학 교수 크리스찬 윌리엄스박사의 조사내용이 그것이다.

포드, 듀폰, 카네기, 록펠러,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유수재벌들 1백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이들 재벌에게서 몇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첫째가 부모의 유산으로 재벌이 된 사람은 1백명중 겨우 9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91명이 지수성가한 입지전

적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수성가한 91명중 나이로 따져서 60세 이후 비로소 재벌랭킹 100위 이내에 든 사람이 무려 87명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벼락부자, 졸부들은 거의 없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단계적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이들의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하루 평균 11시간이다. 재벌들이 일 많이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 재벌들중에도 하루 4시간 잠자고 1개월중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뛰는 경우를 흔히 본다.

한편 한달 평균 생활비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평균 2백만원이 안된다는 것이다. 억만장자인 미국 재벌들이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알 수 있다. 또한 1백명중 97명이 첫 결혼한 조강지처와 금실 좋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백명이 차고 있는 시계는 평균 3만 2천원짜리였다. 외제 고급시계인 로렉스를 차고 있는 사람이 재벌중에서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부자상을 정립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내용이다.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때 사지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생존드라마의 첫 주인공 최명석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다. 삶을 향한 인간의 숭고한 의지가 빚어낸 기적, 생명의 경이로움과 생명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 준 장엄한 삶의 승리에 많은 국민들이 찬사를 보냈다. 그중에서 아들의 구출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했던 말이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준다.

“이 모든 것이 명석이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온 은덕때문이지요”

정말 새겨 볼만한 대목이다. ㉟